목포시,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중점 추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장려 분위기 조성
인센티브 제공 등 5개 분야 13개 핵심과제

목포시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한다.

목포시는 19일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감사·인사·복무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점 과제로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조성', '목포형 청년문화 브랜드 사업', '바닷속 해저관로 매설 수돗물 공급, 섬 지역 식수난 완전 해결'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도 일반 공무원에 공무직,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송 지원, 배상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한다.

반면,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엄정한 조치도 병행한다.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강효석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의 도전과 혁신, 작은 관심과 실천은 시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서이남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관내 주요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무안군 제공〉

서이남 무안군수 권한대행, 사업 현장 점검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안전사고 예방 강화 당부

서이남 무안군수 권한대행이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해 관내 주요 역점사업 현장 추진 실태를 방문·점검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부터 10여일간 읍·면 별 역점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건설 사업장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사고 예방 이행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사업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지는 무안읍 복합문화센터, 물맞이 치유의 숲, 회산백련지, 항공특화산업단지, 메이커 스페이스, 남악체육시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현장 20여개소다.

첫 방문 대상지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무안읍 성남리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 현장으로 서 권한대행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추진 상황과 문제점 여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서이남 권한대행은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천년의 樂, 나주풍류열전' 내일 첫 공연

9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 동익헌서 선봬

나주시는 19일 "시립국악단 토요 상설공연 '천년의 樂, 나주 풍류열전' 첫 공연 무대를 오는 21일 금성관 동익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공연인 나주풍류열전은 대대로 전해져 오는 우리 소리와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풍류를 선물한다.

2016년 시작돼 올해 7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 2년 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취소됐지만 일상 회복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21일 첫 공연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금성관 동익헌에서 열린다.

나라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무용 '태평성대', 우리소리 배우기 '범 내려온다', 국악 실내악곡 '민요의 향연', 나주 출신 가야금명인 안기옥의 곡을 가야금 2중주로 재해석한 '새봄', 남도민요 '신사철가', '진도아리랑', 신명나는 사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판놀음' 등 화려한 가무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나주에서 국악을 시작한 청소년 가야금중주단과 차세대 명창을 꿈꾸는 어린이 소리꾼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한빛원전, 스마트플랜트로 재탄생

국내 원전 최초 발전소 내 무선기술 적용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최근 '한빛6호기 스마트플랜트 무선통신망 구축 준공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스마트플랜트 사업'은 기존 발전소에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 운전 감시, 설비 관리, 유지 보수, 예측 진단을 자동화하는 등 발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선 기술 사용은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숙원사업이었으나 발전소 기기에 대한 전자파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이 지연됐다.

이번 사업은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빛원전은 국내 원전 최초로 발전소 내에 무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6호기 전 지역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무선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무선통신망을 통해 발전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장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인적 오류 예방과 비상 시 신속 대응 및 작업 편의성 향상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천용호 한빛원전 본부장은 "무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원전에 지속 적용해 발전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발전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운영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상담 지원

함평군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9일 "군청과 보건소, 9개 읍·면사무소 등을 마음안심버스 거점 장소로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전문 보건인력이 경로당, 읍·면사무소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월 중 심리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뿐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된다.

지원자에게는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연계한 진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준 직원들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진도군, 어장 재정비·어촌계 분쟁 해소 기대

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진도군은 19일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 양식 등 63건, 1천380.65ha를 수립해 전남도로부터 지난 4월 말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 대체개발 등 효과적인 어장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양식장·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 우심지구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수면에 대해 면허 처분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상가 매매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감정가 9억2천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감정가 25억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